

출마지 급선회부터 신당설까지 총선 앞두고 요동 치는 지역정가

최영호 전 남구청장, 동남갑→고흥·보성·장흥·강진 선회
 서구갑, 민주 최고위원 송갑석 vs 친명 강위원 ‘운동권 매치’
 서구을, 현역 탈당에 유력 후보 ‘수사리스크’ 변수로 떠올라
 제3지대 신당 창당설에 “모 의원 합류설” vs “가능성 희박”

22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입지자가 출마지역을 급선회하거나 야권 지도자의 측근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제3지대 신당 창당설까지 나돌면서 지역 정가에 격랑이 일고 있다.

31일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당초 광주 동남갑 출마가 유력시됐던 재선 구청장 출신 최영호 전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로 ‘총선 타깃’을 급선회했다. 최 전 정장은 보성 출신으로 초등학교까

지 보성에서 생활했다. 최 전 정장은 “지역정치권 대선 의원들의 적극적 권유와 7~8개월에 걸친 고심 끝에 출마 예정지를 변경하기로 최종 결심했다”고 밝혔다.

3선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동창 매치’에 대해 “치열한 경쟁을 각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1987년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였고, 최 전 정장은 같은 해 6월 항쟁의 선두에 섰다. 최 전 정장은 보성 출신으로 초등학교까

동지다. 7명이 자전타전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던 동남갑은 유력후보의 출마 변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렇다할 경쟁자가 없던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민주당 경선부터 상당 부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고위 관료 출신 출마설이 현실화될 경우 다자구도도 예상된다.

광주 서구갑도 ‘운동권 매치’가 예상된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진이재명계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강위원 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과의 한 판 승부가 유력시되고 있다. 송갑석은 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이고, 강위원은 전대협의 후신인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출신으로 ‘의장 매치’이기도 하다.

서구갑은 송 의원에 맞서 DJ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명진 더연정치팀 대표와 김대

현 위민연구원장, 기획재정부 출신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표발을 누비고 있다. 김 대표와 조 전 부시장은 고교 동문이어서 ‘동문 대결’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종록 서구갑당협위원장, 정의당에서는 박형민 서구갑지역위원장, 진보당에서는 강승철 전 민주노동 사무총장이 거론된다.

광주 서구을도 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구 현역인 양향자 의원의 민주당 탈당으로 무주공산을 노리는 민주당 후보들 간 뜨거운 경선전에 예상되는 가운데 ‘고검장 출신’으로 친명계 인사인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의 ‘수사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양 위원장은 “정치적 탄압” “망신주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수사가 총선 여정

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여의도 정가의 화두로 떠오른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지역 정가까지 파장이 미칠 지도 관심사다. 금태섭 전 의원, ‘정치 9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등을 중심으로 무당층을 끌어 안기 위한 정치적 모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도 “현역 A의원이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설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중도 우파, 보수 진영 일부 인사들의 합류설과 함께 “신당 가능성은 그야말로 희박하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거대 양당 중심 대결정체에 대한 피로감으로 무당층이 두터워진 데다 정치 불신 탓에 중립지대에 머물며 제3지대를 찾는 이들도 없진 않고, 현역 물갈이와 컷오프 등 변수도 적잖아 정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변용일 기자

‘주차난 해소’ 광주송정역 주차장 개장...승객·상권 반응 엇갈려



5월 3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공영주차장으로 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을 포함해 불과 47면 만이 남아있었다. 2층부터 옥상까지는 200~220면이 남아있는 등 주차 환경은 쾌적했다.

이용객들은 그간 묵은 주차 체증이 풀리는 듯 하다가 공영주차장 개장을 크게 반겼다. 최승용(35)씨는 “주차 자리가 터무니 없이 적고 임시 주차장이 불편해 택시를 주로 이용해왔다. 자가용을 끌고 송정역을 온 것이

송정역 이용객 “자가용 끌고와도 주차 편해...환영” 사설주차장 업주 “손님 이탈 벌써부터...운영 걱정”

새삼 신기하다”며 “실제 이용해보니 주차 면수도 넉넉하고 하자 공간도 넓어 쾌적하다”고 평가했다.

임영선(40·여)씨는 “사설주차장을 쓰기에 조금 머뭇거리긴 탓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다. 하루 내내 주차해둔 요금도 크지 않아 출장 갈 때마다 자주 이용할 것 같다”며 “이제 서야 묵은 주차 체증이 풀리는 기분”이라고 후련해했다.

주변에서 사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공영주차장의 개장에 한숨이 늘었다. 벌써부터 손님 이탈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 쉽사리 요금을 내리며 경쟁하기도 어려운 처지이다. 공영주차장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 제공이 어려운 점도 사설주차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공영주차장 주변 한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4대에 불과했다. 공영주차장 개장 직전인 지난주에는 같은 시간 20여 대가 이용했던 곳이다.

업주 김모(48·여)씨는 “공영주차장은 기본 30분 이용에 1500원, 사설주차장은 기본 30분 1600원 풀이다. 큰 차이가 없지만 공영주차장은 KTX 이용객 30% 할인 등 공공기관이 주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며 “세들어 지어진 사설주차장은 매달 400만원씩 토지소유주에게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요금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데다 다양한 혜택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임행택 기자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

“빠른 시간 내 제2차 발사 단행할 것”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다. 발사체는 2단 로켓 엔진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한 채 서해 어청도 서쪽 바다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추락 원인과 관련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발동기체계의 믿음성(신뢰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 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재발사도 예고했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 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며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발표를 종합하면 정찰위성 발사 실패는 충분한 지상연소시험 등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추정된다.

북한의 위성발사는 1998년 8월 ‘광명성 1호’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로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7년여 만이다. 기동취재본부

다음호 6월 7일 발행합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